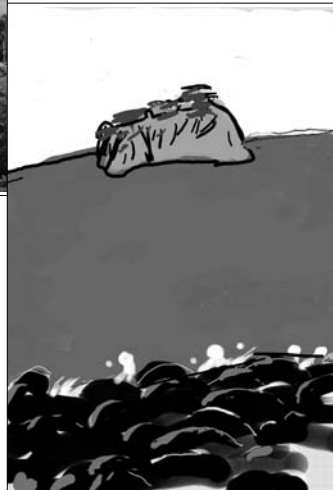


하와이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



- 일 시 : 2013년 1월 28일(월) 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세계평화의 섬 지정 8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하와이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

진행순서

◆ 1부 : 개 회 식

- 개 회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 회 사 : 김용범(행정자치위원장)
- 격 려 사 : 박희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2부 :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 : 하와이군사기지화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

- 발표 : 고창훈(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세계섬학회 회장)

【토론】

- 좌장 : 김용범(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토론 : 이경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경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폐 회

【개회사】

‘세계평화의 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김 용 범 / 행정자치위원장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어제로 8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주 사회는 비평화적인 요소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쉽게 해결 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역시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서 관심을 뒤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하와이처럼 미항으로 만들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를 화두 삼아 논의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차례 현지를 오가며 연구해 온 고창훈 교수님의 “하와이 군사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라는 주제발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수님은 단순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해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평화 산업, 평화교육 등에 초점을 맞춰 진정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인 고은 선생님은 평화란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날 하얀 기저귀를 바람에 말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주에도 그런 날이 넘실대기를 기대합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토론회가 유익한 자리가 되고 ‘세계평화의 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28

【격려사】

【주제발표문】

하와이 군사기지화(진주만 해군복합단지 모델)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에 시사하는 함의 :

미국정부의 하와이 군사기지 지배모델(1893-2013)과 하와이 원주민의 독립·평화문화운동의 갈등 그리고 제주의 “세계보물섬 전략(2013-2018)”의 연성권력 Soft Power 시대의 창출

고 창 훈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목 차 -

1. 하와이 군사기지화(진주만 해군복합단지) 제주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하와이 모델과 원래 하와이 독립운동의 “아시아 제네바 모델”의 불편한 갈등과 공존을 만난다.
2. 하와이 군사기지 모델의 상황과 특징은 군사기지 지배의 전형을 보여준다.
3. 하와이 원주민의 하와이(Hidden Hawaii) 평화섬 운동, 하와이 독립운동, 하와이 평화문화의 상극으로 하와이 태평양함대의 철수를 요구한다.
4.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이 제주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는 제주형 “세계보물섬 전략”의 창출이다.
5. “제주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공을 위해 신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과 제주형 평화산업의 “세계보물섬 전략”이 필요하다.
6. 박근혜 정부의 “세계보물섬 전략”은 감귤관광의 황금시대로부터 4.3의 완전해결책으로서의 6자회담국사무국의 유치 등으로 세계 평화의 섬의 연성권력 시대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7. 제주가 “세계보물섬 전략”의 틀 속에서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세계환경수도의 비전으로 융합시킬 연성권력 Soft Power의 창출을 기대한다.

<부록·1>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과 제주형 평화사업 육성안

<부록·2>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축제

<부록·3> 녹색성장국제기구 설립을 통한 제주대학교의 세계환경대학원 서귀포시 유치

<부록·4> IUCN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

<부록·5> Peace Island Magazine 발간과 제주형 평화산업의 국제홍보

1. 하와이 군사기지화(진주만 해군복합단지) 제주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하와이 모델과 원래 하와이 독립운동의 “아시아 제네바 모델”의 불편한 같등과 공존을 만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2009억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

▲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의 부대의견을 달고, 이를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강정마을회장 :강 동균)는 1월 7일 마을주민들을 대표해 위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3개항의 의견을 정리 전달 정부에 건의하였다

▲ 70일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15만톤 크루즈선박 시뮬레이션 검증

▲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의 입지적 조건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 계획 백지화를 제주도가 정리해 정부에 다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강정마을의 세 가지 요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총리실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1월2일부터 공사를 강행하며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 9825억원 중 2012년말 까지 2685억원을 집행해 공정률 27%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위와 같은 강정 마을의 흐름을 유념하면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이 제주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시사하는 함의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현장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제주도의회가 취할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을 강정마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모델로 제시했는데 실제 하와이 모델을 조사해 보았을 때 강정마을의 모델로서 타당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일단 유보했다가 주민의견을 물어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 역시 하나의 안으로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둘째 하와이, 특히 오후하 섬이 군사기지화로 인하여 하와이 원주민에 대한 피해나 부작용 또는 저항운동은 없는지에 대해 연구해 봐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하

와이 주둔 미 함대 사령부와 원주민과의 대화나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상황이 지속되는지 여부와 갈등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셋째 하와이 대규모 군사기지화 사례의 맥락을 강정마을에 유추해서 적용했을 경우 이에 파생될 수 있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하와이는 대규모의 군사기지들의 복합항 형태인데, 제주도가 하와이 모델을 따를 경우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이를 방어할 육군 그리고 공군부대 등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이 의견도 있는데 강정을 시발점으로 삼고자 할 때 그러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강정마을의 입지가 해군기지로서 적합한 것인지 등, 군사기지로 인해 하와이에 생기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의 영향은 무엇인지? 군사기지로 하와이 이미지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현장 연구에의 요청을 받는다.

넷째 한국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지 8년이 된 지금 세계평화의 섬은 의미가 무엇인지?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1년 반도 지나기 전에 강정해군기지 갈등이 생기는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정이나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지금 현재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해결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섬 영유권 문제로서의 독도나 아오이 다오 섬의 영유권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의미있다고 판단 정립해 나가는 것인지 한국 전반의 안보의 관점에서 타당한지의 검토를 요청받았다.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을 포함한 세계평화의 섬 정책 추구에 필요한 평화문화사업이나 평화교육 사업 등의 소프트 파워 Soft Power 전략이 강정마을의 군사기지 Military Base 전략의 필요성 차원에서 제주도의 미래 역할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WIN WIN 정책이 필요성과 그 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제안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위의 연구목표를 가진 필자는 2012년 11월 6일-10일 세 번째의 하와이 현장방문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와이 주의 수도인 호놀룰루 시가 있는 오후하 섬은 미국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는 지역으로 1/3의 군사지역이다. 그런가 하면 진주만은, 강정과 달리, 만에 숨어 있어 비행기 위에서 그 속을 볼 수가 없는 천혜의 전략적 요새였다. 그런가 하면 오후하의 해안선은 상당 구역이 해상방어 작전구역이어서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다. 물론 기지의 반대 쪽의 와이키키의 해변은 제외된다.

하와이는 1893년까지는 천년정도 지속된 왕국이었다. 미국의 불법전복과 미국의 진주만의 점령 사용 그리고 1959년 하와이를 미국의 주로 편입되었지만 하와이 원주민들은 하와이의 독립을 지향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한다. 그런가 하면 하와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 비무장 하와이 평화운동, 하와이 비폭력 주권운동 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흐름이 하나의 하와이가 두 가지 주체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측면을 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의 만남을 지을 수가 없었다. 하나는 군사기지화된 하와이의 모습으로서 진주만이 상징한다

면, 다른 하나는 평화문화의 원래의 하와이 Hidden Hawaii를 지향하는 비숍박물관이나 동서문화 센타, 하와의 문화예술의 하와이 춤과 노래 등으로 대변되는 평화문화의 모습이었다.

하와이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하와이 모델과 하와이 독립운동의 “아시아 제네바 모델”이 서로 갈등하며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와 지난 김태환 제주도정은 하와이를 제주 강정마을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는 하와이 군사기지화의 상황과 실재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에 저항하는 하와이 원주민과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평화의 섬 8주년을 맞이 한 지금 세계평화의 섬 전략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 비전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강대국은 물론 작은 나라들까지 물리적 군사력 Military Power 보다는 소프트 파워 Soft Power 전략을 중요한 국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검토할 때 제주도의회가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평화사업이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소프트 파워 Soft Power을 증진하는 소위 “제주도의회의 WIN WIN 정책”을 수용하고 선택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제주도의 “세계보물섬”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강정마을의 지역적 보호의 균형을 취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제주도의 WIN WIN 정책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중앙정부에도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뜻이라고 본다.

2. 하와이 군사기지 모델의 상황과 특징은 군사기지 지배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 하와이 군사기지의 일반상황

필자는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방문 현지 진주만 인근의 해군기지 방문 및 태평양 함대 인근을 둘러보고 하버(Harbour)라고 하는 민간 항구를 둘러보았다. 학술회의 참가, 전문가 면담 및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최근 발표된 책자와 논문 등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2006년 6월 하순과 2003년 7월 초순에도 두 차례 방문하여 군사기지 등의 투어 등을 하고 그 인근을 둘러보았다. 두 시기의 큰 차이는 진주만 주변을 2008년 부터 3년간 진주만 해군기지 일대 3,200만불 (400억)을 투자하여 인근 주차장 및 해군 홍보시설 등을 새로 만들어 해군이 주도하는 미국인의 진주만 전승기념관 견학과 해군기지 홍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었다. 이러한 투자비용과 해군기지 견학 등을 목표로 해군이 제한적으로 기지 홍보를 하는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입장료 : 20불 안팎).

본 연구는 하와이 군사기지화가 제주 강정문제의 해결에 시사하는 함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최근의 살아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찾아보고 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만큼 최근의 하와이 현장방문연구와 전문가들, 그리고 관광 관계자들 및 지역주민들과의 면담 및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도민들에게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김태환 도정이 제시한 3가지 정책기준과 우근민 도정이 국회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의 Win Win 정책의 공약내용의 진전 정도 그리고 IUCN 참여의 세계환경 NGO들이 2012년 세계환경올림픽에 의제로 제안한 ‘인권과 환경 및 문화가치’의 정책 에이젠다까지 여러가지의 기준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들 인식의 공감대 역시 검토하고자 한다.

나.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의 특징

하와이와 제주도는 태평양의 한반도의 맨 앞에서 태평양 중앙을 지키면서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거기다가 ‘미국의 제네바’라고 평화의 섬을 표방하면서, 또는 ‘미국의 제주도’ 환경의 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하와이 군도의 가장 큰 섬 Big Island는 제주도의 6.75배의 제일 큰 섬으로 활화산의 용암 섬으로 삼다수와 용암섬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UNESCO의 세계자연유산 섬으로서 미국의 제주도라고 한다. 또한 제주도와 이러한 부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의 섬으로서 동양의 하와이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한편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는 국제평화기구의 스위스 도시 제네바의 모델을 상정하여 “아시아의 제네바” 평화와 환경을 융합한 중남미의 아름다운 중립국인 코스타리카 모델을 상정하여 “아시아의 코스타리카”이길 희망하는 도민들도 많다.

첫 번째 두 섬의 유사점이 많이 이야기 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섬의 넓이와 길이이다. 하와이는 제주도의 9배정도로 넓다. 하와이는 9개의 큰 섬이 길게 늘어선 형태로 단일한 제주 섬의 길이는 12배 이상이다. 하지만 같은 점은 둘 다 왕국이 었다는 점이다. 탐라국은 BC 기원 후 1000년 정도 유지한 왕국이였다면 하와이는 폴리네시아와 사모아 출신 사람들이 BC 900년에 하와이로 들어와 왕국을 세워서 1000년 정도 유지한 1893년 미국에 의해 불법 전복되었고 1959년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하와이는 1960년대부터 하와이 독립을 표명하는 상당한 조직과 원주민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었다는 점이 양 지역이 다른 일반적 차이이다. UNESCO의 국제보호구역으로서 하와이와 제주도 양쪽이 상호간 자매결연의 섬이라는 공유하는 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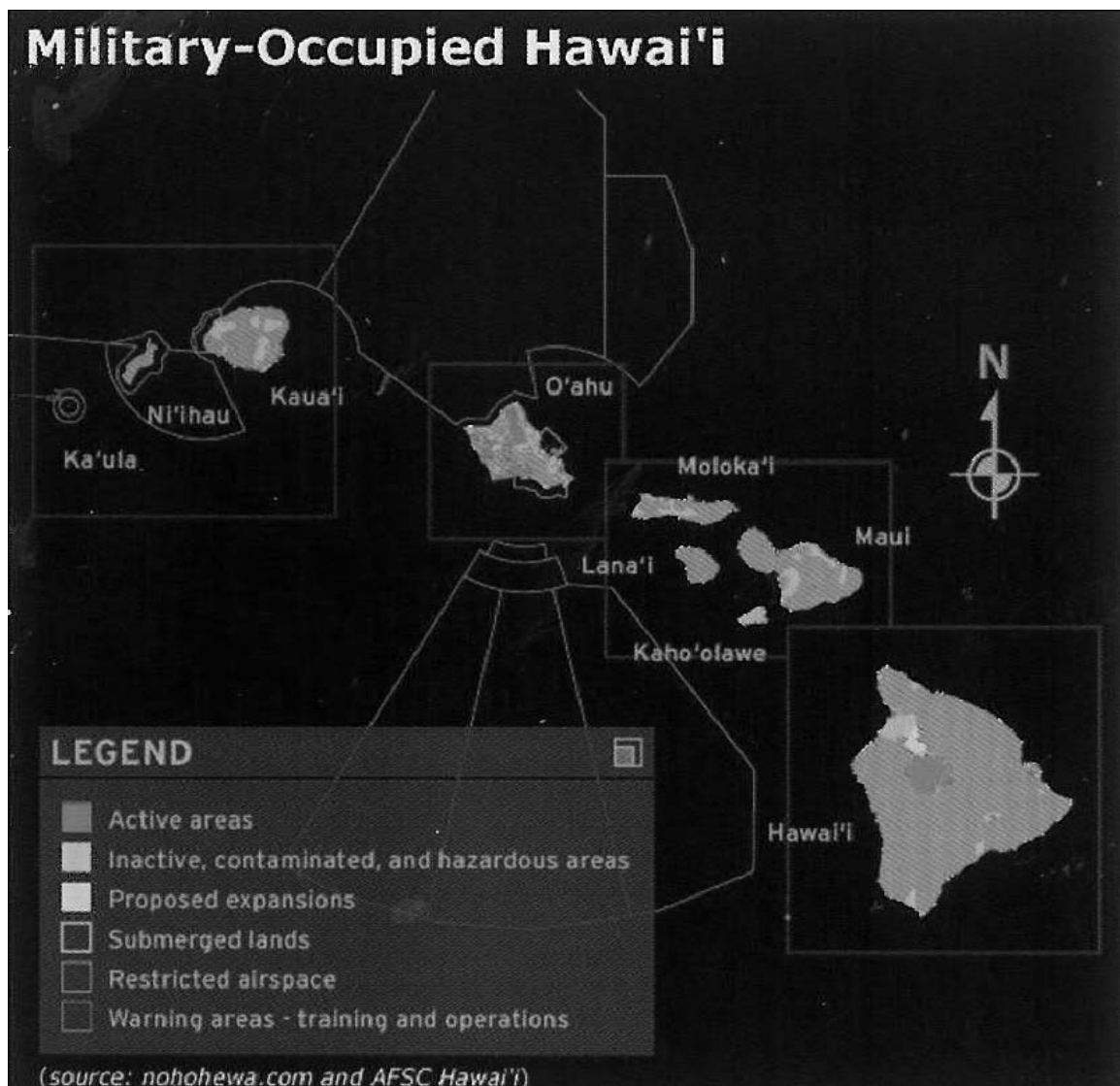
하와이는 전쟁의 섬 혹은 평화의 섬이라고 불린다. 이것을 하와이의 불편한 양면성이라고 들 한다 (2012. Joam Evans Kim. pp.66-67). 전쟁의 섬이라고 할 때 오히려 섬에는 태평양 함대가 있다. 2010 년 미국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예비군이 118,000명에서 전체 인구의 8% 수준이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9명 꼴로 미국 주중 1위이다. 이는 전쟁참여자가 많은 후유증으로 진단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

로 군대는 하와이 사람들의 수입원이 하나 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크고 작은 전쟁 기념관들이 있는데 진주만 군사지대, 전함 미주리호, 펀치볼 국립묘지, 군대 박물관 등을 볼 수 있다(GOOGLE.COM).

다. 미국의 군사기지로서의 하와이 섬 (American Militarized Hawaii) 모델을 따르고자 할 때 하와이의 시사점

하와이가 군사기지의 섬 모델이 된 것은 미국이 하와이를 불법 점령한 1893년 이후 부터의 일이다. 하와이는 태평양 함대의 육 해 공군의 대규모 기지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 2008년 기준 군출신의 예비군 병력이 11만 8천명에 이르고 미국 국방예산의 18%을 사용한다는 점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이다 (2010년 인구통계국과 구글의 통계 참조: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9명 꼴이다). 군인점령의 하와이의 지도(표 1)를 통해 8개의 하와이 군도의 군인점령지도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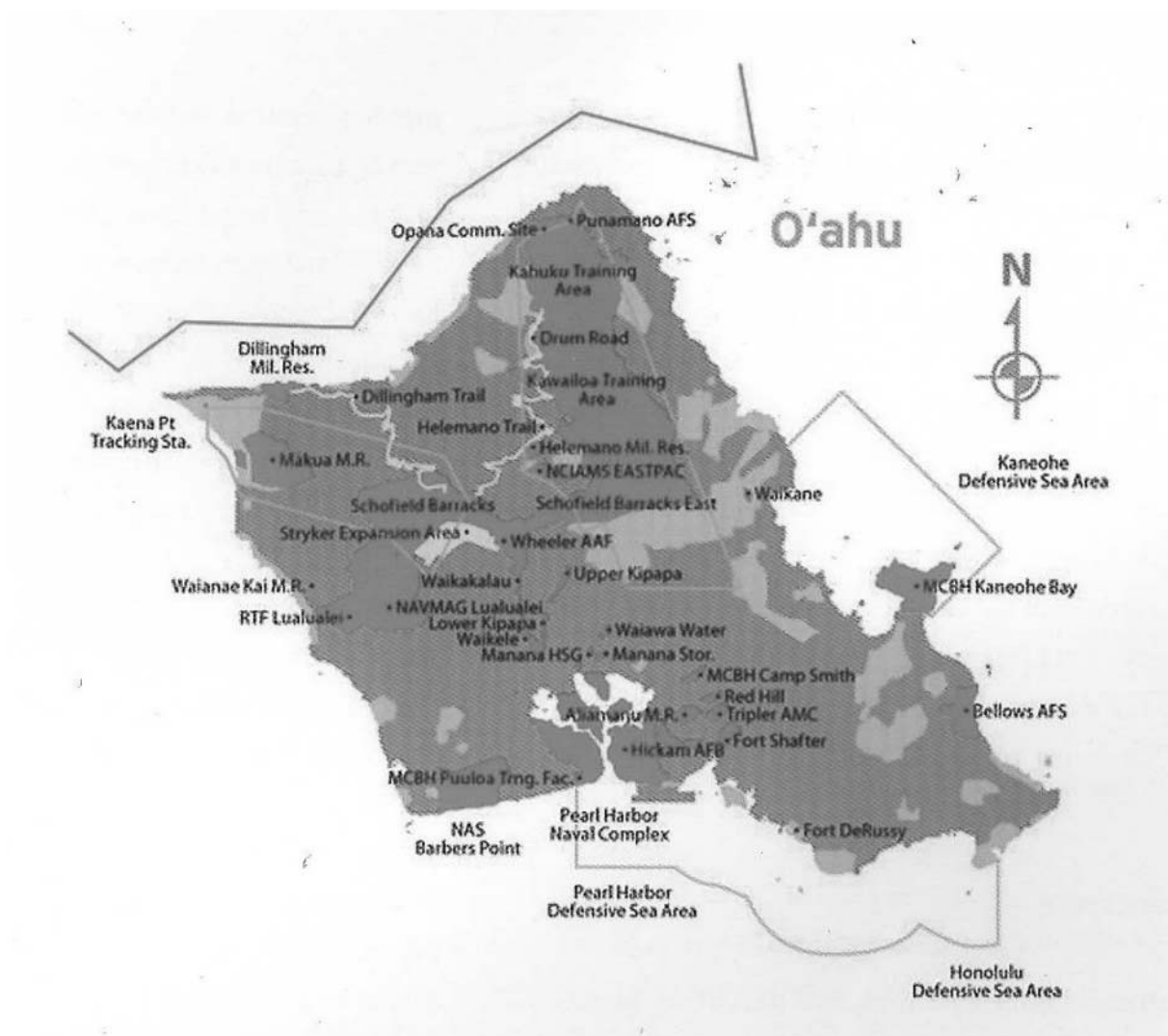
<표 1> 군대 점령의 하와이 지도



군인점령의 하와이는 (1) 작전지역 (2) 오염되어 있는 사고지역 (3) 확정 예정지역 (4) 침수된 땅 (5) 제한 항공지역 (6) 경고지역, 작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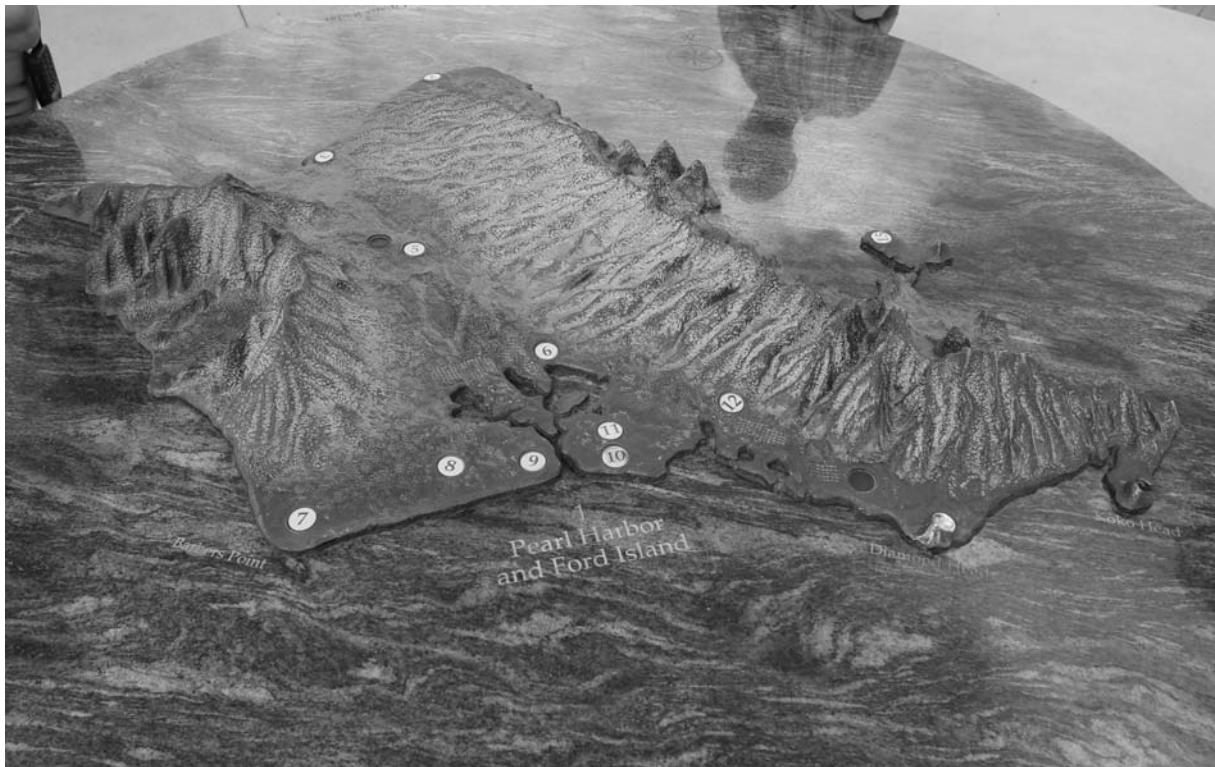
이 중 호놀룰루시가 있는 오후아 섬은 30%의 땅을 군대가 점령한 군사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오후아 섬 주요군대 점령지역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군대 점령의 오후아 섬이다. 여기에서 많이 알려진 진주만 해군단지가 표의 남쪽에 있다. 진주만 바다 일대 18km 지역이 작전 구역이고 카네히 작전구역 바다일대 6km 역시 작전구역이다. 우리가 하와이 군대점령지역이라 할 때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는 오후아 섬을 말하며, 이 섬이 제주도과 넓이가 비슷하다.

<표 2> 군대 점령의 하와이 지도



이 중 진주만 해군단지의 사례를 보다 더 보자.

<표 3> 하와이 진주만 해군단지의 모형 사진



<표 4>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 안내판



<표 5>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



군대점령의 하와이에서 민항이 군사항에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와이 군항만 있지 제주도 같이 제주도 나름의 “민군복합항”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하와이의 군사기지화 경우는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하와이 사례에서 민군복합항이라는 개념이나 실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경우 범으로 반경 8km내 민간인 사업은 불가하다. 또한 해안 16 키로 이상 영향을 받는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최소한 8km 조업활동이 금지되거나 인근지역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여 강정항 만이 아니라 바로 인접의 동쪽의 범환리 너머 서귀포 항구까지 서쪽의 대평리까지 바로 작전구역에 포함되어버린다. 결국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이 작전구역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IUCN이 강정해군기지 건설 중단의 의제를 WCC 총회에 제기한 사요가 된다. 오하후 섬처럼 제주지역의 군대 점령화는 불가피해 저 제주섬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제주도의 관광은 직간접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해군기지 용역 보고서에서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제주도 전체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강정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써 그 일대는 작전구역에 편입되고 민간사업이 금지되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군사기지화와 작전구역의 설정이 가져다 줄 생물권 보전지역의 위축과 오염, 관광

업에의 손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한 부분이 아예 없다는 점은 용역이 급조되었거나 용역 자체가 제주도의 요청만 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용역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연구자가 이 부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잘못 연구 용역 등에 “군대점령의 하와이”를 가지고 산업화를 한다든지 제주도를 브랜드화시킨다면 국제관광의 섬 제주도는 사라져 버리는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브랜드화 하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와이 이면의 저자인 랜달 교수는 하와이 군대 점령의 하와이가 하와이 경제에 기여하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가 기지를 확장을 작전을 하는 문제로 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할 때 하와이 인근주민이나 원주민과의 대화나 동의가 없어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이다.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 추진자들 역시 아예 강정마을 사람들 다수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은 정말 위험스럽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하지만 군대점령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그 보물의 바다 쪽은 강정해군기지의 작전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와이 진주만 해군복합단지의 경우 단지를 중심으로 8기로 작전구역에 해당되는 사례를 놓고 보면 강정해군기지의 경우에도 주상절리의 대포리와 서귀포 항에 이르기까지 작전구역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과급될 관광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나 대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여서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는 점은 세계적 관광지로의 가능성이나 복합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뿐더러 UNESCO 삼관왕의 브랜드화의 이면에 “군대점령의 제주도”의 이미지를 구축 ‘군사의 섬’으로 또는 ‘전쟁의 섬’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마저 없어져 버릴지 모른다. 결국 해군기지가 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논리는 하와이 경우를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현지 원주민이나 주민들은 경제적 제약과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환경적으로 치명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9월 세계환경올림픽에서 강정마을의 보호의제 181가 제안되었다가 부결이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이 의제의 취지를 심층 분석하고 그 취지를 살리는 방식을 찾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충분히 논의하여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강정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3. 하와이 원주민의 하와이(Hidden Hawaii) 평화섬 운동, 하와이 독립 운동, 하와이 평화문화의 상극으로 하와이 태평양함대의 철수를 요구한다.

가. 하와이 원주민의 평화섬 모델은 미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한다.

미국의 군대 점령의 하와이로 추진되는 전쟁의 섬 문화가 있는 한편 원래 하와이의 평화추구의 전통 역시 오래된 섬이 유산이다. 1893년 여왕 릴리 우오칼라는 미국의 하와이 불법 전복에 무력저항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저항을 지향해 왔다. 몇 십년간 지속된 이 운동은 60년대 비폭력의 하와이 주권운동의 근거가 되었다. 하와이 사회의 복원을 주장하는 이 운동은 하와이 전통적 가치인 롤리마 : 공동 선을 위한 협력적 사업, 포노 : 옳은 정의 사업, 로카히 : 단합 속에서의 조화, 코쿠하 : 호의, 로코마이카이 :관대함. 코쿠하: 상호협력, 오하나 : 확장되는 가족, 알로하 아이나 : 땅에의 사랑, 말라마 : 타인에의 배려, 알로하 : 사랑. 평화 등의 가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에 하: 한 폭력의 독점적 상황은 하와이의 전통적 가치의 공격적 성향은 미국에 해롭다 보고 금지시키는 한편 미국적 문화 속의 평화적 문화는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하와이 원주민의 경우 주권과 문화적 복구 운동이 주류를 형성한다.

피난자들의 천국으로서의 하와이는 다시금 평화지대로의 섬 군사기지가 없는 비무장지대, 군사기지가 가져다 주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충격에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군대 확장에의 대응 운동이 나 대안운동이 그것이다. DMZ HAWAII나 알로하 아이나 그룹들이 그러하다 (쿠완슨, 1991). 글렌 페이지 박사의 세계 비 사살상 센타는 하와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살상 하와이를 현실화하려는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는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2009년 10월 제1회 비살상 리더십 스쿨이 열렸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 비살상 세미나 등이 열렸다.

나. 하와이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군사기지는 당연히 철수해야 할 존재이며, 하와이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1993년 빌 클린턴의 미국의 하와이 1893년 불법전복과 하와이 독립 운동에 대한 학살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하지만 그 사과이후 요구한 자치권과 손해의 배상에 대한 요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2000년 상원의원 아카카는 상원에 아카카 법안, 즉 하와이 원주민의 자치권과 내무성에 이를 관장하는 부서의 설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여 하와이 원주민의 교육법과 보건법을 제정을 요청하는 2000년 공동 화해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하와이 대법원은 하와이 자치권에 대해 아직까지는 거부하고 있어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청된다. 하와이 원주민 그룹은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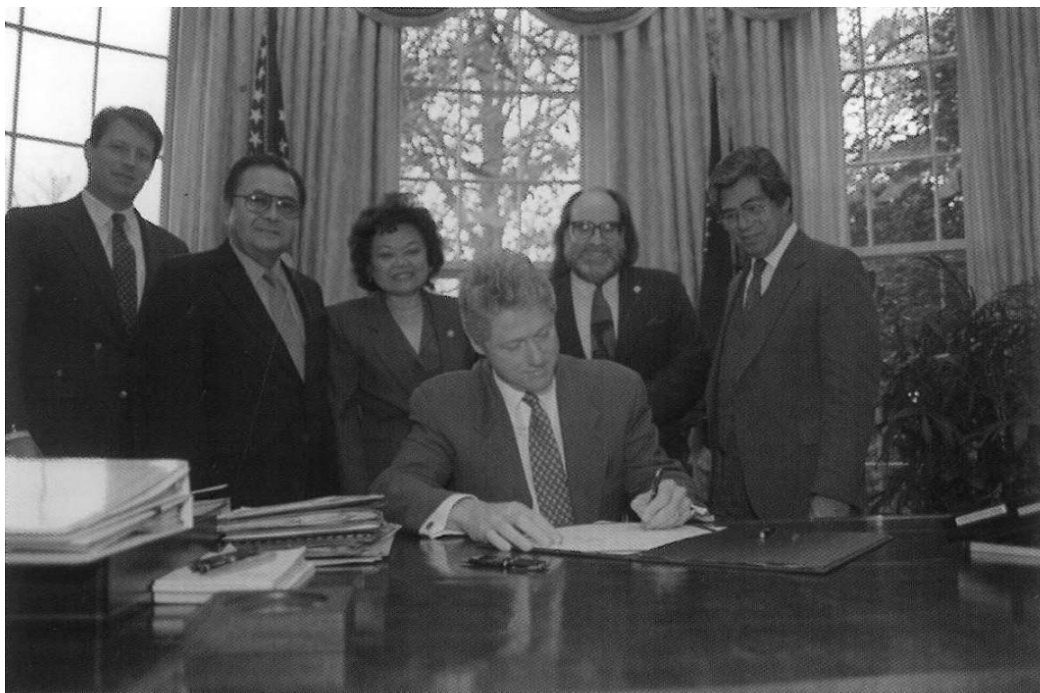
그러나 숨겨진 하와이의 이야기는 하와이 나뭇의 평화 섬으로서의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하와이 독립을 모색하고 있다.

<표 6> 하와이 주권 독립운동의 집회 (2012.2)



Pro-sovereignty supporters gather in front of the Iolani Palace in Honolulu.
Retrieved from <http://hawaiianhistorian.blogspot.com/2012/02/rethinking-hawaiian-sovereignty.html>

<표 7> 1993 빌 클린턴 대통령의 1993 하와이 불법 전복의 사진



Former President Clinton signs the Congressional Apology Resolution to Native Hawaiians in 1993.
Retrieved from <http://www.balanceofculture.com/2012/03/the-apology-resolution-to-hawaii.html>

<표 8> 비숍 Bishop 평화박물관의 전경 (2012.11.9)



<표 9> Rapa Nui 섬과 돌하루방(Bishop 박물관 소장) 2012. 11. 9.



<표 10> Rapa Nui의 장승(Bishop 박물관 소장) 2012. 11. 9.



비폭력 평화운동이 시사하는 점은 120년 군대 점령 하와이는 원래의 하와이가 아닐 뿐더러 하와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와이 독립을 지향하는 운동은 군사와 전쟁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비무장의 섬, 비살상의 섬으로서의 원래 하와이 복원을 제기한다.

4.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이 제주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는 제주형 “세계보물섬 전략”의 창출이다.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은 전체적으로 태평양 함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기지 집중 시설이다. 이제 이러한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가 제주에 던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가. 군사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의 답습이 아니라 제주형 연성파워 Soft Power의 세계정치 시대의 준비였다.

겉으로 보면 하와이는 지상의 낙원이다. 항상 여름 날씨이면서도 태평양 길게 늘어진 섬들의 나열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하지만 하와이 왕궁을 가면 바로 그러한 환상은 지워진다. 1893년 미국정부의 하와이 왕국 불법 전복과 그 후 미국정부에 의한 하와이 군사기지화 120년의 질곡과 이에 저항하는 하와이 원주민의 독립운동과 평화운동을 살펴보았다. 하와이 군사기지화가 제주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주는 메시지는 하와이 군사항 지배의 모델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주가 제주 나름의 연성파워를 키우고자 한다면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은 강정 마을에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하와이 모델을 생각한다면, 군항으로서의 개발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와이 군사기지화 개념 속에 민군복합형은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와이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 주둔의 군사기지의 센타로서 육해공군 특수부대가 다 주둔하는 모델인데 강정마을이 해양권 수호에 있는 전초기지가 되어 육해공군 특수부대가 있어야 한다면 산남 요소 요소가 군사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하와이 군사기지가 제주에 전하는 의미는 연성파워의 세계정치 시대에 대한 제주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은 크루즈 해양관광에의 활용도가 가능하도록 항구의 입지도 검토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통한 크루즈 해양관광에의 가능성에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그 검증은 선박 입항 가능성만이 아니라 크루즈 해양관광에의 활용도 고려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하와이의 경우 제주도 보다 9배가 넓고 큰 섬만 9개나 된다. 제주도는 하와이의 1/9의 작은 단일한 섬이면서 세계평화의 섬, 국제관광지, 세계환경허브로서의 위상도 정립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의 목표로 활용하려는 데서 오는 목표 상호간 우선순위의 충돌이 발생한다. 강정의 경우

생물권 보전지역과 강정기지의 군사작전구역과 겹치게 되면 세계환경 보물섬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역시 있어야 한다. 2012년 9월 IUCN이 강정마을 사람들, 자연, 문화유산의 보호를 우려하여 해군기지 건설의 중지를 요청한 이유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UNESCO 생물권 지역의 훼손과 장기적이 피해를 고려해서라고 볼 수 있다. 강정항의 입지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다.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대한민국의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개발하려는 항구의 공식 명칭은 우여곡절 끝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고들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협약서가 다르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목표에 충실하려면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의 협정 당사자는 (1) 국토해양부 (2) 제주도 (3) 강정마을 (4) 국방부등의 의견을 반영시키되 이를 대한민국 국회가 보증한다면 보다 타당해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여기는 UNESCO 인근마을로서 강정마을의 보호에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1) 강정마을은 군대점령의 하와이 모델같이 가서는 환경적으로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어, UNESCO 세계유산 삼관왕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2) 군대점령의 하와이에서 군대의 기관과 원주민간에 작전 문제 또는 군대주둔으로 인한 오염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통과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하와이 학계의 지적을 유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정의 경우 아직 해군기지의 일방적 건설 여부를 놓고 상호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명시와 경제적 이익이 원주민 (지역주민)에게 귀속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미국 하와이의 경우 국방예산에 의한 군대에의 혜택 118,000명의 예비군에 나가는 연금 등 혜택이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제주도의 경우에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4) 하와이 경우 군대가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거나 충돌한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세계비살상 센타나 마츠나가 평화연구소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제주도정의 Win Win 정책은 15만톤 크루즈 입항가능성과 이를 통한 해양관광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제주도의회의 윈윈 정책은 강정마을사람들의 인권, 자연, 환경, 문화의 보호에 중심을 둔 WIN WIN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와이 군사기지화 정책이 제주도 시사하는 함의가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군항이 아니라 민항이므로 하와이 군사기지화는 제주 강정마을이 모델이 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2) 제주도는 하와이의 1/9이면서도 세계환경수도과 군사기지화,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등을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총량제의 과부하 상황이 나오는 만큼 공간사용의 전략이 필요하다. (3) 미국정부의 하와이 불법전복과 군사기지화 전략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평화문화운동이 일반화 되었듯이 군과 민의 신뢰가 없으면 민과 관의 갈등이 깊어지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세계환경보존총회 참여 NGO 다수가 강정마을 사람, 자연, 유산의 국제적 보호가 절실한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조절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차기 정부가 6자회담을 제주에 유치하여 북핵 문제도 다루고 추가적인 의제로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6자회담국에 제안할 수 있도록 6자 회담국 문화축제를 제주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하와이 콜로키움(2012.11.7 및 11.9의 하와이 로우스쿨 평가회)에서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 조셉 나 이 교수의 연성권력 Soft Power 전략의 흐름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적인 상황을 한국정부가 인식해야 할 때라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결정에서 조지 부시 미국정부의 강제력을 중요했다면 버락 오바마의 미국은 연성권력 Soft Power의 중요성을 인식과 대화와 설득의 세계정치를 하고 있는 바 한국이 제주도를 활용한 연성정치의 시대의 필요성을 새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의 틀 속에서 제주도를 해군기지의 건설을 통한 군사기지화의 군사력으로 보다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중립적인 국제관광지로서의 역할로서의 연성과위의 근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 할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에도 기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섬영유권 분쟁 해결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정치에서의 연성과위적 근거지로서의 “세계보물섬”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하와이 콜로키움의 결론이라고 본다. 특히 제주도가 이러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중국 영사관 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사관도 설치함으로써 중국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상설화 제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하와이 콜로키움의 제안이었다.

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선결과제는 “민과 관”의 신뢰구축이다.

하와이도 하와이 독립운동, 평화문화운동, 하와이 DMZ 운동 등 군사기지의 철수를 위한 운동이 지속적이다. 제주도 강정의 경우 7년째 해군기지의 일방적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8주년을 맞은 지금 강정마을 사람들의 인권과 마을 보호의 문제를 제주평화문화의 확장 차원에서 검토되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의 틀 속에서 강정마을의 평화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강정사람들이 강정마을에 세계평화섬 센타나 강정평화센타를 육성하겠다는 노력을 수렴하고 지원해야 한다. 하와이 사례는 군과 민이 신뢰가 없으면 갈등과 대립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강정 역시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2012년 한해만 12만 넘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군의 신뢰가 없다.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면 갈등은 지속되고 민관복합형의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5. “제주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공을 위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과 제주형 평화산업의 “세계보물섬 전략”이 필요하다.

하와이 제주43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던 11. 7 ~ 11. 9 미군정 평화시대의 제주양민 학살과 평화문화교류사업 평가회가 하와이대 법전원에서 열렸다. 그때 논의되었던 대화를 정리해 본다.

로쓰 렌달 교수 : 알로하 하와이는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미국이 군대점령 하와이를 만든 이후에는 군대여! 떠나다오! 아픔과 염원이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군대와 하와이 원주민 간 소통과 신뢰가 없어요.

행사 참여의 여자교수 : 저 9월 WCC에 참여했어요. 이 신문 보세요 (강정리 발행 10월 1일자 Gangjeong Village Story). 제주도 강정마을 사람들이 WCC를 흔들었어요. 강정마을 사람들의 인권보호가 없는데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무의미해지고, 세계환경허브는 강정바다의 환경파괴로 힘들 수 있다는 게 WCC 참여 결과였습니다. 두 대통령 후보의 생각은 어떠하나요?

필자 : 제주의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을 승인한 노무현 정부의 근시안적 사고로 인한 세계평화의 섬이 해군기지의 딜레마를 초래했지요. 당시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의 연성파워 Soft Power가 세계정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설득과 화해를 역할을 하는 만큼 세계평화의 섬 전략을 그러한 흐름에서 인식하여야 하는데 조지 부시 등의 군사적 파워의 필요성 요구에 순응한 듯한 인상도 주었다고 봅니다. 한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인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한 일은 다행이에요.

새로운 정부가 연성파워 시대의 한반도 전략 중의 하나로서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6자회담국의 사무국을 제주도에 유치하거나 6자회담국 회의를 제주에 개최하고 북핵 의제를 논의하되 “세계평화의 섬” 협약 체결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비전과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아시아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로쓰 교수 : “군대점령의 하와이”는 군대의 홍보관광을 운영하는데 국한되어 있고 11만 8천명의 예비군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여할 뿐 하와이 주민이나 원주민

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원주민 다수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와이키키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 빅 아일랜드의 화산관광과 커피산업 등이 화와이를 브랜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군대점령의 하와이”이 자신의 왕국을 잃었고 자신의 문화를 잃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어 하와이 왕국으로의 복원과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필자 : 이명박 정부는 6년 전 제주의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을 승인한 노무현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은 세계정치에서의 Soft Power 전략 인식 부족으로 인한 잘못이었는데 이것은 잘된 결정이라 하고 이를 계승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연성과워로서의 “세계의 보물섬” 전략과 “군사기지의 보물섬” 전략은 같이 갈 경우 “세계보물섬”의 환경과 자연은 파괴되어 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계환경보물섬”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려면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의 강행 정책보다는 한반도 연성전략의 하나로서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6자회담국의 사무국을 제주도에 유치하여 6자회담국 회의를 제주에 서 개최하고 북핵 의제를 논의하되 “세계평화의 섬” 협약 의제도 제안하여 6개국 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세계평화의 섬 비전과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외교의 섬, 문화의 섬, 관광의 섬으로서의 “세계보물섬”의 활용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한반도의 튼튼한 안보 전략의 틀 속에서 제주도를 연성과워의 근거지로 세계정치에 활함으로써 대한민국도 제주도도 WIN WIN 할 수 있는 “세계보물섬 전략”이 새 정부의 전략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정희 시대 제주는 감귤과 관광의 황금시대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시대는 감귤과 관광의 업그레이드 바탕에 두되 세계평화의 섬과 세계환경수도를 융합한 세계보물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교수 : 소프트 파워로서 세계의 평화의 섬 협약을 체결하는 제안은 좋다고 봅니다. 미국 측에서 좀 급진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요. 미국의 협력을 받을 수 없을 경우의 비상대책 a Contingency Plan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밀고나가기 바랍니다. 하와이측은 하와이 상원의원 등을 통하여 이러한 취지를 미국 정부와 정계에 요청하여 지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필자 : 제주도측은 중국정부의 외교자문인 제주대학교 석좌교수를 통하여 이러한 의견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릭 교수 : 하와이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서 하와이측에서 제안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이야

기를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Contingency Plan은 어떠한 정도를 말하나요.

글렌 페이지 박사 : 이것은 서울대학교와 글로벌 비살상 센타 공동회의후 2012년에 펴낸 책입니다. (Six Culture Exploration : 6자회담국의 평화문화의 이해를 필자에게 선물했다.)

필자 : 그렇다면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축제를 내년 10월 쯤 개최하면 됩니까?

에릭 교수 : 그렇습니다. 그때 하와이 법전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니히코 교수 :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도 참여 가능할 것입니다.

필자 : 2013년에는 4.3평화교육과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을 7월에 개최할 때 참여해서 이러한 강좌를 개설해도 좋겠네요.

글렌 페이지 박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섬끼리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섬 간의 평화문화가 증진됩니다.

필자 : 저는 2012년 9월 세계환경올림픽 때 세계의 섬 국가 등 51개국 참여하는 국제여행자 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Tourism Partners의 지오프리 리프만 총재로부터 2014년 11월 2000명 규모의 창립 총회의 개최를 제안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안도 수용은 하되 오히려 세계섬정부 정상회의 World Island Governments Summit WIGS를 개최하여 해양제 marine issues,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와 평화산업 Peace Industry를 논의하여 국제해양평화기구를 설립 해양문제와 해양문화의 허브를 조성한다면 그것이 세계해양지역의 평화산업을 이끌고 그러한 국제기구가 제주지역의 연성권력시대의 중심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글렌 페이지 박사 :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계적 대회를 유치할 때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초청하면 그 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방향이 제주형 평화산업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하와이 제주 무용공연 같은 것을 유럽 미국 본토에서 해 낸다면 그것은 평화적 해양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필자 : 감사합니다. 이번 하와이 모임에서 연성권력시대의 평화문화산업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전략을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표 11> 하와이 섬문화 콜로퀴움 대표단(하와이 로스쿨 방문) 2012. 11. 9.



6. 박근혜 정부의 “세계보물섬 전략”은 감귤관광의 황금시대로부터 4.3의 완전해결책으로서의 6자회담국사무국의 유치 등으로 세계 평화의 섬의 연성권력 해양 시대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2009억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

▲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의 부대의견을 달고, 이를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오늘 현재 28일째이다. 지난 17일과 18일 민군복합항 검증을 마쳤다 한다. 박근혜 정부가 42일 이후 이명박 정부처럼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정책이 아니라 민과 관의 신뢰에 바탕을 둔 “제주형 관광미항”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군대 점령의 하와이의 군사기지화의 문제가 제주 강정마을 보호에 시사하는 함

의를 정리하자면 제주도의회의 나뭇의 강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제주도의 민군복합관광미항의 Win Win 정책의 보완책으로 민과 군의 신뢰에 바탕을 둔 “제주도 의회의 WIN WIN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WIN WIN 정책 15만톤 크루즈의 동시 접안에 집중되고 있는 일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주도의회는 군사항 지배의 건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WIN WIN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강정마을을 위한 평화섬 Win Win 정책은 제주도내와 국내에서 한반도의 튼튼한 안보개념의 틀 속에서 연성파워 Soft Power의 “세계평화의 섬”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주도와 정부가 “세계평화의 섬”의 국제협약을 6자 회담국에 제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자회담국의 문화축제와 평화섬 포럼, 4.3평화교육과 Peace Island Leadership의 제도화”, 세계평화의 섬 국제적 공유를 위한 공동 잡지나 방송국의 운영, 그리고 강정마을의 보호 정책을 포함한 평화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세계정치에서의 연성파워 Soft Power로서 세계평화의 섬에 세계환경수도의 비전을 발전적으로 융합한 “세계보물섬”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제주도의 WIN WIN 정책을 보완하고, 나아가 연성권력의 시대에 세계보물섬 전략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세계보물섬 전략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WIN WIN 정책이라 명명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 문화계 그리고 마을 단위 등에서 시행되었거나 모색되고 있는 풀뿌리 평화의식과 거기서 생성된 평화분야의 6개의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주형 평화산업의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필자가 나뭇으로 파악했거나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행의 예비 계획서를 부록에 제시하여 그 실행 및 논의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의회의 “세계보물섬 전략 실현을 위한 WIN WIN 정책” **(신세계평화의 섬 전략의 방향 (2013-2017) 부록 참조)**

박근혜정부에게 건의 할 세계보물섬 전략의 핵심은 연성파워 시대의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완충지대로의 설정 또는 활용이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처럼 강경책만 쓰다가 실질적인 정책을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나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서 연성파워의 활용에 맞추어서 박근혜 정부 역시 연성파워의 근거지로 제주도를 키워 나갈 것을 제안하기 바란다. 특히 지금 출범한 제2기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의 섬 영유권 분쟁에 조정 역할을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역할에 도움을 주는 국제회의나 연구의 장소로서 제주도를 활용함으로써 연성파워의 신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음의 6가지 사업의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지역 및 정부차원 : 연성과워 Soft Power시대에서의 세계보물섬 전략의 공감대
형성과 외연 확장운동 (WCC의 세계환경보물섬 전략 + 해양
문제/해양문화의 보물섬 전략 + 세계평화의 섬 평화보물섬
전략 + 국제교육의 교육 보물섬 전략)

국가 및 국제차원 : 6자 회담국 사무국의 설립과 이를 통한 세계평화의 섬 협약
체결 국제회의의 제도화 /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의 개최와
해양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 평화산업의 국제 해양 허브 조
성의 국제기구 유치 / 국제환경 국제해양 및 국제평화의 용
합 연수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한 세계환경대학원 단계적
설립을 통한 UN 기구화

세계평화의 섬 세계보물섬 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대학/ 마을 또는 주민 주도
의 평화협약/평화교육/평화 미디어/ 평화환경융합 예술사업/ 강정마을 주민 주
도의 사업 (평화영역)

(1) 세계평화의 섬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축제”와 평화섬 포럼의 제도화

(2) 제주4.3과 섬평화문화와, 환경, 해양, 녹색성장 융합의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의 운영을 통한 세계환경대학원의 단계적 설립을 통한 UN 기
구화 지원

(3) 세계 섬정부 정상회의 World Island Governments Summit WIGS의 제주
유치와 국제해양문제의 평화적 접근과 국제해양문화 허브 조성을 위한 국제해양
평화기구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섬 영유권 분쟁문제 연구와 해결의 조정기
구로서의 역할 (UNESCO 트리플 크라운 브랜드 가치의 활용 포함)

(4) 섬평화공유를 위한 국제잡지(또는) 공동투자에 의한 방송국 설립사업 “
Peace Island Magazine or Peace Island Networking Company”

(5) 평화와 환경가치 융합의 문화예술의 지원 사업 (문화예술계 의견 반영)

(6) 강정마을의 평화문화를 지키고 기념하는 사업 (향후 논의)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섬은 한반도 안보개념의 틀 속에서 군사기지의
근거보다는 연성권력 Soft Power 의 특별지역으로 키우는 전략이 필
요하다.**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교수(2004)는 연성권력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연성권력은
강제하는 군사적인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여 선택하
게 하는 한류와 같은 문화적인 힘을 말한다고 하였다. 세계 정치에서 성공하는 것

은 설득과 합의에 의한 연성권력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2007년 년두 교서에서 후진타오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연성권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면 같은 해 미 국방장관 로버츠 게이츠 역시 미국이 연성 파워를 키우는데 주목하여 경제적 협력, 외교적 협력, 시민들의 힘, 문화적 전략적 소통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Soft power is a concept developed by Joseph Nye of Harvard University to describe the ability to attract and co-opt rather than coerce, use force or give money as a means of persuasion. Nye coined the term in a 1990 book,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He further developed the concept in his 2004 book,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The term is now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affairs by analysts and statesmen. For example, in 2007, CPC General Secretary Hu Jintao told the 17th Communist Party Congress that China needed to increase its soft power,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spoke of the need to enhance American soft power by "a dramatic increase in spending on the civilian instruments of national security--diplomacy, strategic communications, foreign assistance, civic action and economic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2012. Google. com).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중국과 미국 모두 연성권력 Soft Power 을 강조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게 갈등의 군사기지가 되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큰 잘못이 있다면 세계정치에서 연성권력의 힘에 대한 인식, 즉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키울 때, 한국문화의 한류처럼, 연성권력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의 세계평화의 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연성권력에의 확신없이 미국 군대의 강경파 등의 요구에 쉽게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있게 된다. 한국처럼 주변 강대국의 대결 속에 위치해 있을 때 연성권력의 근거지로서의 완충지대 Buffer Zone으로 세계평화의 섬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계정치적 인식이 새 정부에게 필요한 새 술인 만큼 새 부대에 담는 노력을 기대한다.

제주도 4.3의 완전해결을 공약했다면 해군기지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전쟁 갈등의 공포 역시 막는 연성권력 Soft Power 양성의 문화정책과 해양문화 정책을 우선시 할 때 가능하리라 본다.

미국의 보수 저널리스트이자, 동아시아 전문 연구가인 도널드 커크 기사는 2012년 6월 13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찾아와 2시간에 걸쳐 강정 해군기지, 제주 4.3 비극, 한반도 정책, 나의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이론 등등에 대하여 상호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코리아 타임스에 " 낙원에서 싸우는 일 Battling Bases in Paradise : 2012.6.14 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끼나와가 입증한 것이 있다면 군사기지들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석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군사기지는 또 다른 군사기지를 만들고 계속해서 군사기지를 만든다.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교훈이 있다면, “ 강정 여기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이 해군기지 완성을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주도가 오끼나와 처럼 되는 것은 막을 것이다. If Okinawa proves anything, it is that bases are magnets for attack. One base needs another and another. For those fighting construction of any new base, the lesson is, ‘Don’t let it happen here.’ That argument probably won’t stop completion of the navy base on the island but may keep Jeju from becoming another Okinawa.”

그는 일주일 후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Beautiful Island, sad story” (2012. 6.21. Korea Times 칼럼)라는 칼럼을 썼다. 거기에서 제주가 4.3의 비극으로 최소 3만명을 잃은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4.3 갈등은 섬사람에게는 전쟁이며 지옥같은 것이었다고 썼다. 해군기지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 산물로 하여 갈등이 다시금 일어난다면 아름다운 섬의 슬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시사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서 4.3 비극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가추념일로 지정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차이가 없이 동일한 공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서도 승리하였다. 하지만 4.3의 완전해결은 , 해군기지를 승인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외교적이면서 완충지대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해군기지보다는 연성권력 육성정책인 세계평화의 섬 비전 다시 세우기를 통해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한다는 “세계보물섬” 전략이 세워 실천해 나간다면 박근혜 정부는 두 정부와는 달리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안보의 틀 속에서 제주도가 비교적 중립적인 평화의 섬으로서 6자회담국이 사무국이 있는 6자회담이 열리는 상황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그래서 이를 뒷받침 할 공군기지나 육군기지로 들어서고 그래서, 하와이처럼, 강정항을 중심으로 좌우 8 km가 군사작전구역으로 설정되었을 때 제주도의 국제적이고 평화적 역할은 어려워진다. 만에 하나 중국정부가 이러한 군사기지를 이유로 관광객을 단속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 역시 특별하게 마련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제2기 오바마 정부의 집권 플랜 발표에서 아시아의 섬 영유권 분쟁에서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정

책에 대응하여 한국정부가 제주도를 아시아 섬 영유권 분쟁 문제에서 세계섬연구의 단체들과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활용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평화섬으로의 역할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새 정부가 “20세기 박정희 시대에 관광과 감귤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받았다면 최소한 그보다는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바란다. 오히려 새정부가 연성권력의 평화시대에 대비하는 신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21세기 박근혜 시대에는 연성권력 세계평화의 섬 비전과 평화산업의 세계보물섬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새 정부가 제주도 4.3의 완전해결을 공약했다면 해군기지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와 전쟁 갈등의 공포 역시 막는 연성권력 양성의 문화정책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세계보물섬 전략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이다.

7. 제주가 “세계보물섬 전략”의 틀 속에서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세계환경수도의 비전으로 융합시킬 연성권력 Soft Power의 창출을 기대한다.

하와이가 미국정부의 불법 전복 후 120년간 군사기지화의 불행을 겪었고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독립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도 냉전시대의 제주4.3의 비극을 겪어 28명 인구 중 3 만명의 희생하는 비극을 겪었다. 그만큼 평화의 섬을 향한 열망이 강했고, 그 결과 제주는 이미 2005년 1월 27일 한국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도 않은 채 해군기지의 건설을 승인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경찰력의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정책은 무시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다음 달 출발 할 때, 세계평화의 섬 정책은 과거 두 정부처럼 무시당할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달리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듯이 연성시대의 신 세계평화의 정책을 실현해 나갈지 도민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새 정부가 태평양 문명의 번영을 위해 6자회담국 사무국을 유치하고 국제해양시대의 시대의 “세계보물섬” 전략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평화문화, 평화교육, 평화축제, 평화산업 및 평화마을의 육성에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2012년 WCC에 제주도 대표단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이 “제주도가 환경가치와 평화가치를 융합할 수 있는가?”였다. 세계환경 수도가 되려면 평화의 가치를 융합 수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의 올란드 1920년 파리협약에서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은 북극 자원의 보호를 위해 주둔하지 않는다는 스발바르의 9개국 협약으로 중립지대가 되는가 하면, 핀란드의 올란드 섬은 오랜 외국군

주둔의 폐해를 극복하고 1920년 주민투표와 핀란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유엔연맹의 승인을 받아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1921년 선언되고 차후에는 EU에 의해 승인되어 현재에 이른다.

한편 중남미의 코스타 리카는 1948년 좌우 내전을 거친 후인 1948년 헌법에 군대를 가지지 않은 영구 중립국을 선언함으로써 중남미의 평화섬과 같은 국가로서 중남미 협약이 체결되면서 세계의 인정을 받는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UN의 세계평화대학원이 있고 환경선진국으로서 평화와 환경을 융합한 모델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가 태평양 문명권에 있는 섬으로서 세계환경 수도를 지향하는 시대에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재도약을 추진 연성권력 Soft Power 시대에의 창출을 이루어 낸다면 이는 태평양 문명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 명박 정부와 달리, 해양수산부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시대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주가 해양문제와 해양문화의 가치를 최대화하여 세계해양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열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주도 의회가 “제주도의회의 WIN WIN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세계보물섬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뿐더러 제주도가 단지 15만톤 크루즈 입항검증을 넘어 항구 선정의 적합성, 해양관광과 연계한 발전방안 등은 물론 신 세계평화의 섬 전략의 틀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분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2008. 고창훈 외 (제주발전연구원 편) '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기획과 도전- (서울, 보고사).
2011. Chang Hoon Ko. " Role and Status of Jeju Island as a Demilitarized World Peace Island for Sustainable Pacific Civilization",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Vol1. No. 1.). pp. 33-50.
2011. Joam Evans Pim. "" Peaceful Islands : Insular Communities as Nonkilling Societies",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Vol1. No. 1.). pp.17-31.
2012. Eric K. Yamamoto, Ashley Kaiao Obrey and Sara Lee. " US Hawaiian Reconciliation for the Islands of Peace". Peace Island (Vol.6). pp. 73-78.
2012. Glenn Paige and Chung-Si Ahn (edit.). "Non Killing Korea : Six Culture Exploration". Hawaii. Center for Global Nonkilling. Hawaii and Seoul.
2004. Joseph Nye.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2012. Donald Kirk. "Battling Bases in Paradise". Korea Times (2012.14).
2012. Donald Kirk. "Beautiful island sad history". Korea Times (2012.6.21).
- Google.com (2013)
- Jejusori.net (2013)

<부록·1>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과 제주형 평화사업 육성안

(2013-2017)

취지와 목적

■ 도의회의 세계평화의 섬 WIN WIN 정책의 정립 필요성

대한민국 국회는 2013. 1. 1 국회의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사업의 예산이 ① 군사항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의 불식 ② 15만톤의 크루즈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③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의 부대의견을 포함시키고 이의 실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부로 예산을 나누어 분리 편성하고 70일간 공사를 중단하는 데 합의하였다. 본 연구소와 학회는 제주도의회의 “민군복합형의 관광미항”의 개념과 건설에 대한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에 대한 비교와 이에 대비한 “신 세계평화의 섬 비정과 제주형 평화산업 육성(2013-1.1- 2017.12.31).을 정립 도의회의 세계평화의 섬 WIN WIN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함.

■ 태평양 문명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협약과 제주형 평화비전의 정립

제주도가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도를 “태평양 문명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비전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평화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의회가 이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국제협약을 체결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건의하고, 나아가 UN에도 이의 지원을 요청해 나가는 하는 노력을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제주도 의회가 이러한 노력을 노력 제 2의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강정마을회, 학계 및 종교계의 중지를 모아서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 시대를 위한 범도민 기구를 구성하이에 합당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세계평화의 섬 국제교육사업의 제도화

연구소와 학회는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과 제주형 평화사업”에 대한 도민적 합의와 국제적 중지를 구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제주4.3평화교육과 평화섬 리더쉽 스쿨”을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의 4개 국제연수교육 프로그램과 6개의 부대 행사로 확대하여 실행하고자 한다.

2013년은 서귀포시 보목연수원에서 7.22- 7.31과 2014년은 .1.14-1.23까지 4개 국제연수교육의 세계섬전문가 육성과정은 다음과 시행한다.

◆ 녹색성장과 트레빌리즘,

◆ UNESCO 국제보호구역의 가버넌스,

◆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과 해양문화,

◆ 제주4.3평화교육과 섬평화문화 예비 석사과정 각각 20명씩 전체 80명 모집 : 교사 20명, 대학원생 20명, 일반시민 20명, NGO 활동가 20명)의 운영하여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시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함.

■ 2014년 녹색성장국제기구에 “환경과 평화가치의 융합” 모색

2013 PILS의 실행을 바탕으로 2014년 녹색성장국제기구 Green Growth Organization을 서귀포 지역에 창설하여 IUCN이 제주도에 제시한 “세계환경과 평화 가치의 융합”을 실행함으로써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환경허브의 조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학교 차원에서 협력하고자 함.

■ 세계환경대학원에 4.3평화교육의 섬평화문화학과 신설

연구소는 4.3평화교육의 섬평화문화학과를 중심으로 한 4개 연수과정을 제주대학교의 세계환경대학원 (또는 세계평화대학원) 국제협력형 석사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해양문화예술학과,

▣ 녹색성장의 여행학과,

▣ UNESCO 국제보호구역 가버넌스 학과,

▣ 4.3평화교육의 섬평화문화학과 각각 20명 정원 총 정원 80명, 년모집 인원 40명)으로 2013년 하반기 설립허가를 받아 2014.7.1-7.24 서귀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UNWTO와 ICTP 등과 협력하여 2015년 녹색성장의 UN기구화를 목표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면 강정마을의 평화를 세계환경수도의 정책목표에 융합할 수 있다고 봄.

▣ 연구소와 학회는 제주대학교의 세계환경대학원 설립을 위한 자부담의 재정비용을 2014년부터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형 회사를 설립하여 “세계환경대학원 설립기금”을 축적해 나감.

■ “녹색성장 2050 지구비전”의 평화 가치의 실현

연구소가 UN 2050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행하는 녹색성장 국제기구화의 추진은 2012년 6월 20-22일 브라질 리오 G+20 지구정상회의에서 전 UN 사무처장 Maurice Strong 제주대 석좌교수가 UN 세계관광기구 UNWTO 녹색성장설계자이자 국제여행가 협의회 총재인 Geoffrey Lipman교수 등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2050 지구비전”의 실천을 위한 녹색성장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 노력을 하고 있음. (I am involved in an initiative, with likeminded colleagues, to launch a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grounded in the Island province of Jeju in South Korea. Within that framework the establishment of a Green Growth and Travelism Institute is a priority element. As a torchbearer of the green growth 2050 vision, this is envisaged as the centre of a virtual global network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is initiative is very well advanced with prospects of support from a core group of universities on every continent (2012. Maurice Strong, Preface, Green Growth and Travelism, Geoffrey Lipman (edit).

■ “녹색성장 2050 지구비전”의 제주형 평화의 섬 모델 융합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연구소와 및 벨기에 캠페인과 마스랜드 지역 경관연구소 (벨기에 IUCN 대표 및 EU 공원 경관관리위원회 위원) Ignace Schops 소장과 함께 2012.9.9 “제주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협약 Jeju Green Growth and Travelism Agreement)을 바탕으로 2014년 서귀포시 녹색성장기구 설립·세계 녹색성장지역상품국제교류전·녹색성장 국제연수교육 및 교류사업, 녹색성장 문화사업 등을 공동으로 실행함으로써 제주가 “녹색성장 2050 지구비전”의 중심으로서 녹색경제와 재생에너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주형 모델을 정립하여 세계의 지역에 보급하고자 함.

■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제 년례적 개최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와 세계섬학회는 "2013 4.3평화교육과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의 연계행사이자, 세계평화의 섬 국가지정 8주년 사업으로서 미국의 하와이대학교와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등이 2012.11.7 하와이 섬 평화문화 콜로키움에서 공동 제안한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제 Six Islands Culture Festival for World Peace Island Treaty”를 2013.10 서귀포시에서 개최하여 4.3비극의 국제적 해결과 강정문제의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면서 대정지역, 서귀포시 온평리 및 성읍 등의 평화문화는 물론 제주대학교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총 서귀포 지회 등의 창작 음악회를 후원하고 향후 ‘해양문화예술학과’의 개설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세계섬학회의 태평양 문명의 세계섬학 연구소 서귀포시 설립과 운영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사단법인 세계섬학회와 공동으로 2013.5. 한국연구재단의 HK 한국학의 해외지역학에 “태평양 문명의 세계섬학: 세계 섬들의 경험을 기초로 한 “녹색성장의 트레빌리즘” •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과 해양문화” • “UNESCO 국제보호구역의 통합관리론” •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의 섬 평화문화 : 영문: World Islands Studies of Pacific Civilization: “Travelism of Green Growth” • “Sustainability of Jeju Haenyeos and Maritime Culture” • “An Integrated Management Theory for UNESCO Protected Areas” • “Insular Culture of Peace of UNESCO Memory of World Programm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World Islands (2013.10.- 2022.9 : 30억) 공모하여 국제적 연구소로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고자 함. 2013년 7월 PILS에 두 개 강좌 (Green Growth and Travelism과 Governance for UNESCO protected areas)의 개설과 2013년 12월 서귀포시의 세계감귤 fair and festival을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2014년 세계감귤EXPO의 준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서귀포 지역의 사무실을 개소하고자 함.

□ 제주도의회의 강정마을 WIN WIN 정책 프로그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부터 제 2의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 비전 세우기 사업프로그램 (2013-2017)

사업/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화섬 리더쉽 스쿨	7월 80명	1월 80명/ 7월 80명	1월 80명/ 7월 80명	1월 80명/ 7월 80명	1월 80명/ 7월 80명
녹색성장 국제기구 설립	11월 준비 국제회의	11월 국제기구의 결성과 ress	11월 국제이사국 회의	11월 국제이사국 회의	11월 ICIP Congress
세계환경 대학원 설립	9월 설립 인가 신청	7월 40명 모집	7월 40명 모집	7월 40명 모집	박사4개과정 20명과 학부4개학과 400명 모집(정원1600명)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축제	10월(하와이, 오기나와, 하인난시할린 제주도,북한)	10월 6+6개국으로 확장 문화제	10월 6+6+6으로 확장	10월 6+6+6+6으로 확장	10월 6+6+6+6+6으로 확장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국제잡지/방송사업	섬지역 공동의 Peace Island Magazine (7호) 발간	PIM 8호 발간 및 공동 방송국 설립	PIM 9호 발간 및 공동 방송국 운영	PIM 10호 발간 및 공동 방송국 운영	PIM 11호 발간 및 공동 방송국
세계평화의 섬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창작음악화개최	뮤지컬 제작 과 해외공연 지원 및 서귀포지역 상설공연	뮤지컬 제작 과 해외공연 지원 및 서귀포지역 상설공연	뮤지컬 제작 과 해외공연 지원 및 서귀포지역 상설공연	뮤지컬 제작 과 해외공연 지원 및 서귀포지역 상설공연운영

* 실행 예산의 경우 실제 실행이 전제되었을 때 같이 제안함 *

기대효과

-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시대의 타당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주형 평화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제 2의 세계평화의 섬 시대를 준비함.
- 2012년 6월 20일-22일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의 " 지구녹색성장 2050 비전"을 수용 년 2회 실시의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을 제도화하여 녹색성장 국제기구 Green Growth Organization GGO과 세계환경대학원의 설립을 모색함
- 세계 51개국 가입의 국제여행가파트너협의회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ourism Partners), EU (벨기에의 지역공원관리협의회)와 지역경관관리위원회와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의 제주녹색성장과 트레빌리즘 협약(Jeju Green Growth and Travelism Agreement : 2012.9.9)을 바탕으로 2014년 회원국 ICTP Congress 녹색성장지역상품 국제교류전과 6대륙 녹색성장 국제연수 교육의 홍보효과와 녹색성장의 국제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특히 서귀포의 세계감귤 EXPO와 연계 개최 운영함으로써 상호간의 윈윈 효과를 기대함.
-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문화제를 창설함으로써 강정의 "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이 국방부 주도의 군사항이 지배할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민간차원에서의 민간중심의 관광미항으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을 6개국 중심으로 시작하여 2014년 12개국 2015년 18개국 2016년 24개국 2017년 30개국으로 협약지역을 확장함으로써 강정마을을 세계평화의 섬의 핵심 마을로 육성함
-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참여의 국제잡지 Peace Island Magazine과 국제방송국 Peace Island Broadcasting Company를 공동 설립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섬의 평화문화와 교육을 진작시켜 나가고자 함.
- 녹색성장 시대의 섬 평화문화교류사업으로서 창작 음악회, 뮤지컬 제작 등을 지원하여 세계환경대학원의 해양문화예술학과 설립과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국제적 브랜드화에 도움을 줌

<부록·2>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축제

Six Islands Culture Festival SICF
for Agreement of World Peace Island Treaty
(2013. 10.19-10.21)

□ 취지

1. 2012. 11. 7- 11.9 제주해너미주공연과 평화문화 콜로퀴움: 한국 제주 4.3 비극의 개최 결과 하와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와 하와이 세계비폭력센터 등이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의 6자회담국 간의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 체결 제안을 공동으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6자회담국 민간인 차원의 국제문화행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축제”의 2013년 10월 19일-21일까지 3일간 개최를 제안하여 이를 준비하고자 함.

2. “6개국 섬 문화축제 Six Islands Culture Festival SICF”는 2013. 10.19-10.21 3일간 개최되, 6개회담국의 서울 주재대사관 또는 제주의 영사관의 협력을 얻어 6개국 환경다큐 영상제, 6개국 전통 음식문화체험제, 6개국 대학 참여의 “ 제13차 Peace Island Forum : 6자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협약”의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기타의 이벤트를 포함시킴.

(대한민국 제주대, 중국 하이난섬 하이난 대학교,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미국 하와이 대학교,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교, 북한 김일성대학교 : 통일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초청)

3. 2013.10. 제주대학교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세계섬학회가 한국국제교류화 재단의 해외문화예술교류 파트너쉽 사업에 “블터뮤지컬과 제주한류사업”으로 공모하여 부대행사로 해양음악, 해너춤공연, 제주갈옷패션을 소재로 2014년 2015년 세계무대에 소개함.

3개 프로그램과 예산 9천 8백만원 (도 예산신청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1	6개국 환경 영상제	번역 및 자막처리: 12편 * 1,500,000	18,000,000
		상영비:	20,000,000
	합 계		380,000,000
2	6개국 전통음식문화체험축제(1개국 1명씩 초청)	초청비용: 6명 * 2,000,000	12,000,000
		대회개최비용: 6회 * 500,000 * 3일	9,000,000
		부수설치 지원비:	1,800,000

		6개 * 300,000	
		기타:	200,000
	합 계		23000000
3	6개국 참여의 평화섬 포럼 (6개국 대사 및 6개국의 발표자 각 1명)	초청자 항공비 지원: 10명 * 2,000,000	20,000,000
		발표비: 8명 * 500,000	4,000,000
		사회 및 토론비: - 2명 * 8=16명 - 16명 * 300,000	4,800,000
		책자: 300권 * 5,000	1,500,000
		홍보비: 1,500,000	1,500,000
		환영 및 폐막 리셉션: 100명 * 50,000	5,000,000
		기타:	200,000
	합 계		37000000

4. 제 13차 Peace Island Forum : 섬의 평화문화 공유와 세계평화섬 협약 Sharing Insular Cultures of Peace and World Peace Island Treaty (10월 18일 : 서귀포 KAL Hotel)

제 1세손 Sharing Insular Culture of Peace and World Peace

1. Hawaiian Case 2. Jeju Island case 3. Robben Island of South Africa 4. Tasmania of Australia 4. 토론 일본 홋카이도 5. 러시아 사할린
3. World Peace Island Treaty 6. 중국 하이난 다오 7. 코스타리카 8.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9. 핀란드의 올란드 9.토론 한국 10. 토론 오끼나와

5. 기대효과

- 1) 2013년 11월 북핵 6자회담의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의 체결을 제안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함으로써 6자회담국 개최지로 제주를 상례화시키는 효과를 가짐
- 2) 제주4.3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6자국 문화축제를 실행함으로써 강정문제의 긍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
- 3) 6자회담국 간의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국제기구의 창설과 본부를 제주에 설립하는 효과를 가짐
- 4) 섬의 평화문화와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개최함으로써 강정문제의 갈등 해결에 평화적으로 기여함

<부록·3>

녹색성장국제기구 설립을 통한 제주대학교의 세계환경대학원 서귀포시 유치

2013.1.7

2014. 녹색성장국제기구 설립을 통한 제주대학교의 세계환경대학원 서귀포시 유치를 위한

2013 평화섬 리서더쉽스쿨(대학원 예비4개과정)과 6개 연관행사 :

2012.6.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 녹색성장, 2012.9. 세계환경올림픽의 UNESCO 국제보호구역의 관리,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과 해양문화, 제주4.3평화 교육과 섬평화문화 과정의 세계섬전문가 교육프로그램과 연관행사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대학교 서귀포시 보목연수원

(2013년 7월 22일 7월 31일)

(1차 모집 2013년 1월 11일-2.28, 2차 모집 2013년 3월 1일-3월 31일, 3차 모집 4월 1일-4월 30일 국내외 모집)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제주협약 (2012.9.9)에 의한 국제연수교육과 녹색성장 국제기구의 설립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소장 : 제주대 고 창 훈 교수)는 UN 세계관광기구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연구소장이면서 51개 회원국 참여의 여행가 파트너쉽 국제협의회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ourism Partners (ICTP) 지오프리리프만 총재, 벨기에 국립공원연구소장이며 세계적인 환경보호주의자인 이그나스 솅스 박사는 2012.9.9. 세계환경올림픽 회의에서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제주 협약을 체결하고 녹색성장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다음사항에 합의 하였다:

(1)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서 발의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한 연결모델을 실행한다.

(2) IUCN의 2012 세계환경올림픽 제주대회(WCC)와 벨기에의 유럽공원관리연합회의에서 이를 체계화해 나간다.

(3) 벨기에의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the Green Growth and Travelism Institute (GGTI)을 지지한다.

(4) 모리스 스트롱 교수가 제안한 세계환경대학원 서귀포시 설립의 기본적인 준거 틀에 입각하여 녹색성장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5) 해양과 섬의 발전에 제주도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의 창립을 지원한다.

(6) 연결모델은 녹색성장 활동을 지원하고 ICTP가 51개국의 회원국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제주대학교 서귀포시 보목연수원에서 평화섬리더쉽

스쿨 a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 PILS을 실행한다.

세계환경: 급진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

전 UN 사무처장 모리스 스트롱 석좌교수는 2012. 6. 리우의 G+20 지구 정상회의가 우리 시대 희소한 자원에 대한 첨예한 경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변화를 요구했던 것은 지금 현재의 경제 체제의 급격한 개혁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대부분 지금 현재의 세계경제체제의 중심에 있는 서방국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세계경제체제가 지구 생명유지체제에 손해를 가져다 주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서방국가가 독점하는 모순이 축적되었다. Rio 지구정상회의는 UNEP과 같은 동일한 지위를 갖는 특별한 기관이 이러한 과제를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세계환경기구의 출범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2012 Rio 지구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제주도에 세계환경대학원 a World Environment University의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세계의 동료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녹색성장국제기구의 설립을 바탕으로 세계환경대학원 설립이 추진되는 만큼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이 우선적인 요소이다. 2050 녹색성장의 선도자로서 이 기구는 연관된 기관과 조직의 실질적인 세계중심의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각 대륙의 핵심대학들의 중심 집단들의 지원과 전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2.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지오프리 리프만 편집).

녹색성장 국제기구 Green Growth Organization GGO 서귀포시 사무국 설립(2014) 추진

제주도는 지역적 차원이나 밑바닥 현장차원에서 세계유산의 보존에 창조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제주도 사람들은 특별히 UNESCO 세계자연유산 사이트와 자신들의 삶의 관습과 지혜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9월 15일 제5차 세계환경올림픽이 승인한 의제 052는 녹색성장기구 a 'Green Growth Organization' 설립할 때 다음의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자 한다.

- 에코 시스템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지침과 처방이 포함된 통합보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일.
- 서로 다른 등재의 재평가의 서로 다른 기간의 통합을 포함한 보호구역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일과 이 모델을 IUCN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일
- 세계의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연환

- 경의 보존에 대한 국제기구들이 협조할 수 있는 협동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일
-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사이트들과 같은 국제보호구역의 통합을 야기한 자연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존, 체계적인 통합과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통합된 법률이나 지자체 차원 조례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UN기구, 국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일.

IUCN의 2012.9.15 WCC 총회 폐막 때 채택된 제주선언은 녹색성장국제기구 설립의 근거로 삼고 회원국들에게 제안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 a) 보존을 증대시키는 일 : 제주선언의 첫 부분은 보존을 증진시키는 일을 말한다. 보존을 증진시키는 일은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를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제도화한다. “보존을 가능케 하는 상당한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규모의 보존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증진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식이 활동을 유도하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의미있는 활동과 교정적인 조치는 생물다양성의 위협에 관한 보다 나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동물의 희귀종, 식물 서식지, 에코 시스템, 가버넌스 그리고 성적 차이에 의한 자연에 대한 인간 의존성에 대한 정보를 창출하는 노력을 심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의사결정자들에게 효율적인 육지경관 바다경관 관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을 보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시켜 준다.”
- b) 자연에 근거한 해결책 : 두 번째 부분은 “생물다양성은 문제로 인식할 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연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식량안보, 그리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영역에서의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들에 대한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연에 근거를 둔 해결책은 인간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잘 관리되는 다양한 에코시스템에 입증된 기여도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다. 그리고 해결책은 가난한 공동체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추가적인 발전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왜 좋은 환경파수꾼이 모든 사람이 관심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인간성이 자연에 근본적으로 의존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 지식, 좋은 가버넌스와 지속가능한 투자를 향상시켜 나가야만 한다.”
- c) 실천하는 지속가능성
- 정보, 시민사회, 기업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세가지 차원을 고려하는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고 공평한 경제적 성장, 공평한 사회적 발전과 포괄성, 그리고 자연자원

과 에코시스템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이다.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결정의 주류이어야만 한다. 이는 다자간의 환경 협약의 완벽한 집행을 지원하면서, 리우 회의들을 포함한다. 녹색기술로의 이전 역시 공공 분야와 사적 영역의 업무로 이전되어야만 한다. 정부와 기업은 동시에 포괄적인 녹색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이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룹을 포함하고,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고, 생태적인 경계선 내에서 인간성의 발자국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Jeju Declaration: http://www.iucnworldconservationcongress.org/news_press/?11090/Towards-a-New-Era-of-Conservation-Sustainability-and-Nature-based-Solutions

제주4.3비극의 해결을 위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와 강정마을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 추구

제주대학교의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가 2012년 10월 29일 제주4.3국제컨퍼런스와 2012년 11월 7일 하와이 평화문화콜로키움에서 제주4.3비극의 해결을 위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국제협약"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2000년 제주 4.3특별법에 의한 국가위원회나 2003년 진상규명 보고서 사업을 통해 4.3진상규명에 진전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한다. 2003년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 사업의 조성, 2005년 1월 27일 국가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 4.3평화기념관의 운영, 2008년 4.3평화재단의 설립과 재단의 설립과 추가 조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한다. 물론 개별적인 배상은 이루어 지지 못했지만 (에릭 야마모토, 2012).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4.3평화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연수교육을 실행한다.

우리는 2012년 세계환경올림픽에서 세계환경운동가들이 강정마을 사람,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 의제 181 ("M181 of WCC in Jeju Island : 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 (September 14, 2012. Jeju Island Korea)가 IUCN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의미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WCC의 제주선언 Jeju Declaration의 3원칙을 실천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여 이 문제를 연수교육의 한 주제에 포함시킨다. 강정마을은 일강정이라 할 정도로 물의 마을이고 한국환경부 지정 우수 생태마을인 평화섬 마을이다. 이 마을은 UNESCO 생물권 보존지역 a UNESCO Biosphere Reserv, 중문 주상절리 지질공원 Global Geological Park 마을이며 세계자연유산 사이트 World Heritage Sites의 해안경승지이다. 이 지역에는 수천 종의 희귀 식물과 생물이 서식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었는데 이미 한국정부는 용암바위 구렁비("Gureombi")파괴해 버렸다. 50종의 희귀 산호초와 역사유적, 20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이 마을은 없어져 버리고 생물성 다양성

문화는 파괴되어 버린다.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인 평화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거기다가 해군기지를 짓는데 년 12만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강정마을을 인권탄압의 마을로 변화시켜 버리고 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의 불법적인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탄압함으로써 4.3 당시의 인권탄압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주도민들은 우려한다.

이러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연구소는 2011.11.22 6자회담국의 사무국 제주유치와 6자회담국 간의 "세계평화의 섬 협약 World Peace Island Treaty by 6 Talks Countries"의 체결을 한국정부가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2012.10. 29의 제주4.3 평화재단의 제주4.3 국제컨퍼런스와 2012.11.7. 하와이대의 평화문화콜로키움의 제안을 수렴하여 2013. 10. 6자회담국 참여의 6개국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바란다.

제주4.3 비극의 평화적 해결과 강정마을의 보호운동이 UN의 평화문화 결의안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the main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of the UN Resolution A/RES/53/243 :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 (October 6th 1999), 세계평화의 섬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규 과목을 개설 이를 다루어야 나가고자 한다.. 제주4.3비극은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의로벤 아일랜드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수감장소, 한국의 5.18 민주항쟁의 기록을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일과 마찬가지로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시켜 세계인과 함께 냉전시대 아시아에서 발생한 제주4.3비극의 인권탄압의 역사를 세계와 함께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인권존중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2013 평화섬 리더쉽 스쿨 : 세계섬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제주는 WCC 제주선언의 세가지 목표. “보존을 증진시키기”, 자연중심의 해결책, 그리고 실천하는 지속가능성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주는 마을 공동체들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원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역시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중단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자연친화적 해결책을 적용하며, 복원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제주지역의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인류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연구소와 사단법인 세계섬학회는 국제여행가 파트너쉽 위원회와 벨기에 국립공원협의회 등의 2012.9.9. 협약을 바탕으로 2012 리우정상회의의 녹색성장의 사고와 세계환경올림픽의 제주선언 3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의 시민, 교사, NGO 활동가 및 대학원 4개 국제연수과정에 각각15- 20명씩 60-80명씩을 모집 제주대학교 보목연수원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 4개의 국제 연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과 해양문화Sustainability of Haenyeos' and Maritime Culture (WCC 의제 M-108 : 김태일 교수 등)
- ② UNESCO 국제보호구역의 가버넌스 Governance for the UNESCO Protected Areas to M-067 (WCC 의제, M-52, M-067, M-068, M-80,M-162 : 이선주 교수 등)
- ③ 녹색성장과 트레빌리즘Green Growth and Travelism (WCC 제주선언과 RIO SUMMIT의 녹색성장의 사고: 권 상철 교수 등)
- ④ 4.3 평화교육, 강정마을의 평화와 평화 세우기April 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s of Peace (WCC의제 M-181과 UNESCO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 고창훈 교수 등).

The 2013 PILS for World Islands Specialist Program in Jeju Island
(30 Professors 5 Program Managers : Mr. Dae-joon Kim & Mr. Nathaniel Preston, Mr. Yun-bok Kang, Ms. Jihee Kim, and Mr. Kwon-oh Kang)

Date/ Course	Sustainability of Haenyeos' and Maritime Culture (Tae-il Kim)	Green Growth and Travelism (Sang-cheol Kwon)	Governance for the UNESCO Protected Areas (Sun-joo Lee)	April 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s of Peace (Chang Hoon Ko)
July 22 (Mon)	Traditional Community, Seungeup Folklore village, Haenyeo's Culture, and Island (Tae-il Kim)	Green Growth Tourism in Jeju Island (Sang-cheol Kwon)	Conservation for the UNESCO protected areas (Sun-joo Lee)	Jeju 4.3 Peace Park : Jeju 4.3 Mass killing & World Peace (Hunjoon Kim)
July 23 (Tues)	Experiencing Haenyeos' Life in Udo Island (Eung-jeong Kang)	Green Growth and Economy (Kyung-joo Lee)	Reconnecting Model for the UNESCO protected areas (Ignace Shops)	Jeju 4.3 Mass killing & Reconciliation of Hawaii (Cherri Tarutani)
July 24 (Weds)	Haenye Museum and Rituals and Folklore at Gymyoung Haenyeos' village (Haenyeo Museum)	Green Growth and Travelism (Geoffrey Lipman team)	Reconnecting Model for Resilience of Hanon Maar (Ignace Shops)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 Roben Island of Nelson Mandela and Jeju April 3 Tragedy (Douglas Yates)
July 25 (Thurs)	Jeju Island Identiy (kumi Kato)	Green Growth a(Geoffrey Lipman team)nd Travelism	Eco friendly Agriculture for the UNESCO protected areas (Jung-sup Kim)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 Roben Island of Nelson Mandela and Jeju April 3 Tragedy (Douglas Yates)
July 29 (Mon)	Haenyeos' Dancing and Marine Music (LeeYum-sim and Hur Dae-sik)	Green Growth and Travelism (Geoffrey Lipman team)	World Environmental Hubs: : Environmental Heirtages (Kumi Kato)	Protection of Gangeong Village, Culture of Peace and World Peace Island Treaty (Chang Hoon Ko)

July 30 (Tues)	Marine Ecology Stewardship , Hansupul Haenyeo School & Jeju Big Swim (Sherrin Hibarb)	Green Growth And Travelism (Geoffrey Lipman team)	World Environmental Hubs : (Shin-ock Chang)	Insular cultures of Peace and Gangeong village: Aalland, Lanzarote, Hawaii and Okinawa (Dr. Grant McCall)
July 31 (Weds)	Jeju Haenyeo's Muljil Performance (Lee Han-young)	Green Growth and Renewable Energy (Il Whan Kim)	World Environmental Hubs : Climate Change Education (Dai-yeun Jeong)	Peace Building and Theory of Peace and Peace Education (Dr. Grant McCall)

연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평화불턱법정

Global Peace Bultuk Tribunal in Seogwipo July 26, 2013 : Moderators, Dr.
Sang-deuk Kang, Nathaniel Preston and Dae-joon Kim

음악행사

Musical Performance in Seogwipo city July 26, 2013 : Director, Mr. Dae-sik Hur (Musician : Associate Professor of JNU and Wind Symphony Orchestra
제주큰수영 Jeju Big Swim in Udo Island July 27, 2013 : Organizers, Sherrin Hibarb, Lee Han-young, Elizabeth Church, Sung-eun Lee and Sheong-shik Cho
연구소는 2013년 제주대학교의 하계대학 (38개 제주대학교 교류 국내 대학생 학점과정 : 5.1-5.31. 공동 학점신청 : 기간 : 2013. 6.26- 7.16 : 제주대학교 학사과 관리)에서 두개 과목을 지원하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과대 행정학과 고 창훈 교수의 NGO와 정부
- 2) 사범대 지리교육 전공 최 광 용 교수 환경지리학 입니다.

연구소가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31일 까지 네가지 여행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모집하여 지역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참여/협조기관의 의견을 수렴 시행가능시 실행합니다. .

1) 우도의 잠수회 해녀 체험 교실 (2박 3일 각 30명씩 5회 150명의 외국인 대상 운영함) We support 5 Experiencing Tour with Sustainable Life of Jamsuhoi (Hanenyeos'voluntary association) in Udo Island : (1) June 28-30 (2) July 5-7 (3) July 12-14 (4) July 19-21 (5) July 26-28

- 2) 제주감귤박물관의 세계지질공원투어 1일 투어 8회 각각 40명씩 모집 운영 예정
- 3) 제주4.3평화재단의 제주4.3과 평화섬문화투어 1일투어 8회 각각40명씩 모집 운영할 예정
- 4) 제주대학교 또는 해당기관 스마트그리드 교육단 제주스마트그리드 1일 투어 8회 각각 40명씩모집 운영할 예정

위치

제주대학교는 1952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 국립대학 가운데 하나이다. 약 12,000명의 학생들과 600명이 넘는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 도서관은 100만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로서 인구는 약 600,000이며 독특한 문화와 풍속을 지니고 있으며 동서양이 만나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수강 대상

본 프로그램은 전공에 상관없이 세계환경, 해양관광, 평화문화, 평화교육과 글로벌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 외에도 정부관리, 국제기구직원, 교사, 언론인, 사회사업가, 변호사, 심리학자, 예술가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참가를 위해서는 학사학위나 이에 상당하는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경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경비:

등록금 2013년 2월 28일 2013년 3월 31일 2013년 4월 30일 비고.\$75/
 1course\$125/ 1course\$150/
 1 course기숙사비 \$150/
 10 days\$150/
 10 days\$150/
 10 daysOptional식사 \$30/
 10 days\$30/
 10 days\$30/
 10 daysOptional세계불턱법정 발표회 \$20\$40\$50여행 \$25/
 5 times\$50/
 5 times\$100/
 5 times합계 \$300\$395\$4701개과정 신청 \$375\$520\$6202개과정 신청

수강료: 1 코스 당 미화 150달러 (코스당 1,500달러인데 90% 제주도 및 세계섬학회 후원)

본 프로그램은 제주도와 세계섬학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관계로 2월 28일까지 등록하는 인원에는 한해서는 수강료의 50% 할인을 제공하고 4월30일까지 등록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숙사비: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 등 사용, 기숙사 1일 1인당 미화 30달러, 기숙사 10일 거주 시 총 기숙사비는 미화 300달러이며 이 이외의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식사: 기숙사 식당 이용 시 1끼당 미화 3달러

제5회 평화불턱 법정 참가비: 미화 100달러

투어 참가비: 투어 1회당 미화 20달러, 총 5회 참가 시 미화 100불

입금계좌 : IBK 기업은행) 315-037189-01-028 (사단법인세계섬학회)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시 문의하면 알려준다

지원시기: 본 프로그램은 롤링 어드미션(rolling admission)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올 여름 과정은 2013년 1월 11일부터 등록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추고 수강 자리가 있는 경우 수강이 가능하다. 제주에는 3개월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www.peaceisland.asia, <http://weii.jejunu.ac.kr>

문의:

사무국장 통역팀 대표 김대준 (+82 10-3691-7766) Daejoon-km@gmail.com

관리직원 Mr. Nathaniel J. Preston npreston@upei.ca

관리직원 김지희 (+82 10-7179-1113) jejujihee@gmail.com

관리직원 강권오 (+82 10-9548 -3418) lkas3418@naver.com,

자문교사 (+82 10-6777-7272)

자문교수 (+82 10-9636-2936)

여행자문위원 : 강 윤복 kyb113@jejunu.ac.kr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www.peaceisland.asia, www.weii.jejunu.ac.kr

<부록·4>

IUCN 회원에게 보내는 서한문

January 7, 2013

Dear IUCN Members,

Happy New Year!

First of all, we, Jeju delegations of IUCN would like to appreciate IUCN members that they had contributed to making the 5th 2012 WCC of Jeju Island successful event last September including impressive adoption of Jeju Declaration and approval of Jeju motions as Korean people expected them to do those activities on beautiful peace island.

We are also happy to announce that the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Institute (WEII Director: Professor Chang Hoon K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opens the 2013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 for actualizing Jeju Declaration of the 5th WCC in Jeju Island. We recognize that Jeju must embody the three goals of the Jeju Declaration: 'Scaling up Conservation,' 'Nature-based Solutions,' and 'Sustainability in Action.' It seems that Jeju has the ability to mobilize communities to work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eju also has the ability to halt biodiversity loss and apply nature-based solutions to conserve biodiversity, enhance resilience, and s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island and in turn t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planet.

We decided to offer 4 Courses to the public (teachers, graduate students, NGO activists) as below based on Jeju Green Growth and Travelism Agreements by Dr. Geoffrey Lipman , Director of Green Growth and Travelism Institute (GGTI) &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ourism Partners (ICTP), and Dr. Ignace Schops, the Director of Belgium's national parks, & world-renowned conservationist signed on September 9, i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as below: 4 Courses Offered : ① Sustainability of Haenyeos' Culture relating to M-108 (Dr. Tae-il Kim and others) ② Governance for the UNESCO Protected Areas relating to M-067 (Dr. Sun-joo Lee and others) ③ Green Growth and Travelism (Dr. Sang-cheol Kwon and others) ④ April 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 of Peace (Dr. Chang Hoon K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013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 in Jeju Island. With subsidies of Jeju Government and association , we can invite citizens, teachers, graduate students, and NGO activities into Jeju Island with small amount of tuition (15% of total tuition : 150 USD per course plus cheap lodging fee (300 USD ten days' lodging) including meals except airplane fare (reference with file of 2013 PILS)..

We also suggests some related events during period of summer semester (June 26 – July 31, 2013) :

Global Peace Bultuk Tribunal in Gapa Island of Seogwipo July 26, 2013 : Moderators, Dr. Sang-deuk Kang, Nathaniel Preston and Dae-joon Kim

Musical Performance in Seogwipo city July 26, 2013 : Director, Mr. Dae-sik Hur (Musician : Associate Professor of JNU and Wind Symphony Orchestra

Jeju Big Swim in Udo Island July 27, 2013 : Organizers, Sherrin Hibarb, Lee Han-young, Elizabeth Church, Sung-eun Lee and Sheong-shik Cho

We support two courses within framework of 2013 summer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 NGO and Government by Chang Hoon Ko and Environment Geography by Kwang-yong Choi.

We support 5 Experiencing Tour with Sustainable Life of Jamsuhoi (Hanenyeos' voluntary association) in Udo Island : (1) June 28-30 (2) July 5-7 (3) July 12-14 (4) July 19-21 (5) July 26-28.

I can't help but to mention that my institute has worried about issues and controversies over "M181 of WCC in Jeju Island : 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 (September 14, 2012. Jeju Island Korea). IUCN members RECOGNIZE that Gangjeong Village, also known as the Village of Water, on the island of Jeju, also known as Peace Island, recognized as an Ecological Excellent Village (Ministry of Environment, ROK), sharing the island with a UNESCO Biosphere Reserve and Global Geological Park, in close proximity to three World Heritage Sites, is a coastal area home to thousands of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lava rock freshwater tide pools ("Gureombi"), soft coral reefs which have globally unique features and that support 50 species of corals, [27 of which are endemic,] 16 of which are legally protected, freshwater springs, sacred natural sites, historic burial grounds, and nearly 2,000 indigenous villagers, including farmers, fishermen, and Haenyo women divers, who have lived sustainably with the surrounding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 for nearly 4000 years; I NOTE that a Civilian-Military Complex "Tour Beauty" project, a 50-hectare naval installation, is being constructed within and adjacent to Gangjeong Village and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is alleged to be a threat to both the biodiversity and the culture, economy and general welfare of Gangjeong Village, one of the last living remnants of traditional Jeju culture, including destruction of sacred natural sites in and near Gangjeong Village. (IUCN: M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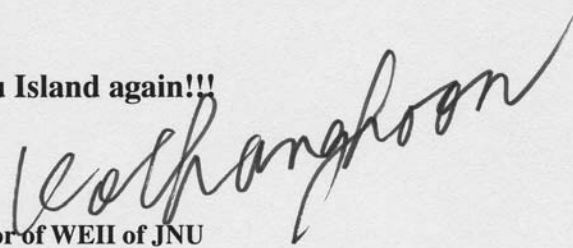
On behalf of participants of 2013 PIS, I am happy to invite you into 2013 PILS in July of 2013 for educational practices for 2012 WCC Jeju Declaration and ideas of Green Growth and Travelism of 2012 Rio G+20 Summit at grass roots and regional level.

See you in Jeju Island again!!!

Best wishes,

Chang Hoon Ko, Director of WEII of JNU

(+82-10-9636-2936).



<부록·5>

Peace Island Magazine 발간과 제주형 평화산업의 국제홍보

Peace Island Magazine ISSN 1739-1431

평화의 섬

Jeju Ba 01008(2003.5.18.)

2013 Vol. 7(148 pages)

2003년 제7호(148 페이지)

April 11 & October 11, 2013

2013년 4월 11일과 10월 11일 발간예정

Cover page Photo

Peace Island Bultuk at Gapa Island

가파도 평화섬 불턱 사진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Institute WEII, JNU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WEII

사단법인 세계섬학회

Editorial Draft

(will be finalized after some discussions with related institutes at the first of
February, 2013)

편집안 (2월 초 관련기관과 논의후 결정)

Contents

목차

4 Greeting Message from the Publisher / Chang Hoon Ko

인사말 편집인

6 Interview with Jeju Governor Mr. Keun-min Woo/Jeju Forum

우근민 지사 제주포럼 인터뷰

12. Protection of Gotjawal Forest

곶자왈 숲의 보호

18. Jeju Governance for UNESCO Protected Areas
UNESCO 국제보호구역 관리
26. Certification of Jeju World Environmental Hubs
제주 세계환경허브의 인증
30. Green Recreation Seogwipo city and Jeju Declaration of WCC in 2012
녹색서귀포 도시와 2012 WCC 제주선언
36. Seogwipo Natural Restoration Forest, Sports, Ollrae, Arts and interview with
Mayor
서귀포 자연생태공원, 스포츠, 올레, 예술 서귀포 시장 인터뷰
45. World Citrus Cluster and Festival in Seogwipo city
서귀포 감귤산업과 축제
56. Resilience and Conservation of Hanon Crater
하논 분하구 복원과 보존
- 62 Jeju "Green Growth and Travelism" Agreement by Geoffrey Lipman
제주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 / 지오프리 리프만
- 65 Re-connecting with our planet by Ignace Schops
지구에서 다시 연결시켜내는 일 / 이그나스 샵
- Peace Island Network
평화섬네트워크
- 68 Corsica of France
프랑스 코르시카 섬의 문화와 포도산업
- 72 Insular Culture of Peace
세계섬들의 평화문화
- 78 Agfest- Tasmania's Agricultural Jewel
타즈매니아 농업축제
- 82 US Hawaiian Reconciliation for the Island of Peace
미국과 하와이의 화해와 평화의 섬
- 88.Island of Sumatra, Indonesia
92. Born Holm of Denmark
덴마크 반 홀름 섬
- 96 Jeju April 3 Culture of Peace
한국의 제주 4.3평화문화
101. The Sustainability of Jeju Haenyeos as a Unique Marine Ecology
Stewardship /

Hanyong Lee

독특한 해양생태 파수꾼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106 Haenyeo Museum and Festival

해녀박물관과 제주해녀축제

110 Hanwha Aquaplanet Jeju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116 Hansupul Haenyeo's School / Young-ho Lee

한수풀 해녀학교

120 Jeju Big Swim / Seug-un Lee

제주 큰 수영 / 이성은

123 Jeju Bultuk Story

제주불턱이야기 / 허대식(제주도의회 의장 인터뷰 포함)

127 Festivals and Projects of Culture and Art Promotion by Jeju city

제주시 축제와 프로젝트(제주시장 인터뷰포함)

134 Jeju Technopark, Leading the Future of Jeju

제주테크노파크

144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

제주대학교와 피스아일랜드 리더십 스쿨

참고

1. 2012.9.4 WCC 기념 발간하여 국내외의 평가를 바탕으로 2013년 년 2회 발간 2012.9. 제주선언과 제주형 의제 실현과 2012 .6. 브라질 리우 G+20 의 녹색성장의 사고를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여 제주형 평화산업과 평화교육, 평화기구 및 평화회의를 세계에홍보하는 국제잡지이면서 세계 섬들의 공동 이익을반영하는 Peace Island Networking의 국제 기관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세계평화의 섬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함.
2. 발간 : 2013. 4. 15.(전반기) 10. 15 (후반기) 각각 3,000권 6,000권 발간. 국제 및 공공기관 납품 및 일부 기관 위탁 지정 판매 예정. 수익금 Peace Island Magazine 발간 및 국제학술지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WEIS (2013년 8,30, 12.30. 2014년 4.30 등 년 3회 발간) 발간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2012 WCC 제주의제 실현의 세계환경대학원과 국제해양기구 제주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금 마련